

제9강 - 『오이디푸스 왕』과 그리스 비극 작품의 특징

(1교시)

◆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

※ 학습목표

3대비극작가중 하나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통해 오이디푸스가 어떤 인물이었으며 어떻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나오게 되는지 알아본다.

▲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 Sophocles, 『오이디푸스 왕』

·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비극 작품 중 하나

· 3대 비극 작가 - Aeschylus

Sophocles

Euripides

- 이들의 작품은 모두 우리말로 번역되어있으며 지금까지 공연된다.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품은 「오이디푸스 왕」과 「메테이아」다.

■참고자료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왕·안티고네』 문예출판사, 2006

▲ 아버지를 죽일 아이에 대한 예언

오이디푸스는 테베스 출신으로 라이오스왕과 이오카스테 왕비의 아들이다. 오이디푸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라이오스왕은 신탁을 받게 된다. ‘너는 네 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라이오스는 이오카스테의 배속에 있는 것이 꼭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헛된 희망을 가진다. 또한 만약 아들이라도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라이오스는 아이가 태어날때까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 가혹한 운명은 배은망덕의 대가

라이오스에게 왜 이렇게 참혹한 신탁이 내려지는 것인가. 라이오스는 왕자 시절, 험한 정치적 격동을 맞이하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왕국이 전복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라이오스의 부친은 라이오스를 옆 왕국 펠로프스로 피신시킨다. 정치적 파동이 해소된 이후 라이오스는 펠로프스왕의 아들 크리쉬프스를 데리고 테베스로 돌아온다. 펠로프스왕국이 강해져 테베스를 공격할 것을 대비해 왕자인 크리쉬프스를 볼모로 데려온 것이다. 자신을 돌봐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다. 그것에 대한 신들의 복수가 그 신탁으로 내려진다.

▲ 오이디푸스의 탄생과 버려짐

라이오스는 그와 같은 신탁의 내용을 본인만 간직한 채 이오카스테의 출산을 감행한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다. 온 나라가 테베스를 이어갈 왕자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는데 단 한사람, 아버지인 라이오스만이 기뻐하지 않는다. 라이오스는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어머니의 젖을 먹여보지 못한 그 아이를 이오카스테의 품에서 빼내서 자신의 충복을 시켜 내다버리게 한다.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아이의 발을 포개서 대못을 박은 상태로 내다버린다.

▲ 발에 못을 박은 이유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중에 물질인 것은 육체고 영혼은 비물질적인 것이다. 비물질적인 것은 자유롭다. 데카르트식 표현으로 하면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연장성이다. 가장 기본적인 영혼의 성질은 자유성이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육체 속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파이돈에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고까지 말한다. 이와 같은 믿음은 그리스 신화시대뿐만 아니라 그리스 철학 시대까지 이어진다.

영혼이 육체 속에 거주하는 동안은 육체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혼 속에는 지성, 이해력이 있다.(칸트식으로는 이성) 육체는 감각능력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종합하고 있는 곳은 영혼이다.

따라서 신탁이 주어진다면 영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아버지 라이오스에게 내려진 신탁의 내용을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이는 운명이다.'라는 신탁으로 아이가 받을 것이다. 그럼 그 아이는 영혼을 통해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이상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

라이오스는 아이의 영혼이 신과 마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발에 못을 박는다. 영혼은 살아있는 동안 육체에 실려 있다. 신전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걸어 다녀서 영혼이 신과 마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발을 고정시켜 버리는 것이다.

▲ 코린토스의 왕자가 된 오이디푸스



코린토스Corinth (성서에서 고린도)

보통의 아이라면 갓 태어나자마자 발등에 대못이 박힌 채 허허벌판에 버려졌으므로 죽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코린토스의 양치기에 의해 발견된다. 양치기가 보니 출산할 때의 오물도 씻기지 않은 채 다리가 포개져 대못이 박힌 채 울고 있으니 보통 아이가 아니다. 양치기는 이 아이를 코린토스의 왕에게 데려간다. 당시 코린토스 왕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그래서 매일 신전에서 왕비와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을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었다. 양치기가 아이를 데려가자 코린토스 왕은 신이 자신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의 뜻

Oedi - 동사에서 파생된 분사로 '통통 부은'이라는 뜻

Pus - 발(foot)

아이의 발 모양을 보고 부어오른 발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다. 그리고 코린토스왕은 모든 백성들을 상대로 오이디푸스를 자신의 아들로 선포한다.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의 왕자가 된 것이다. 그는 왕자로서 합당한 왕위계승수업을 받으며 코린토스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장해나가게 된다.

제9강 - 『오이디푸스 왕』과 그리스 비극 작품의 특징

(2교시)

◆ 그리스 비극 작품의 특징

※ 학습목표

오이디푸스 이야기와 『시학』에서 이야기하는 비극의 특징과 카타르시스에 대해 알아본다.

▲ 출생에 의문을 품은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는 장성한 코린토스의 왕자가 되었다. 대단히 훌륭한 외모를 가졌던 오이디푸스는 모든 코린토스 여인들의 관심사로 궁중의 여인들도 늘 모여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다. 어느 날 오이디푸스는 여인들 옆을 지나다가 우연히 자신이 코린토스 왕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된다. 한 번도 자신의 친부모가 현재 왕과 왕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그는 큰 충격을 받는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 오이디푸스는 그리스 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던 델포이로 향한다.

인간에게는 아폴론만이 신탁을 내리며 그것은 델포이의 아폴론신전의 부속건물인 아폴론 신탁소의 여사제에 의해 이뤄진다.

▲ 오이디푸스에게 내려진 신탁

오이디푸스는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몇날며칠을 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에게 내려진 아폴론의 응답은 출생의 비밀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혼인할 것이다’라는 신탁이었다. 오이디푸스가 인식한 부모는 코린토스의 왕과 왕비이다. 그는 신탁을 피하기 위해 다시는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난다.

▲ 아버지를 죽인 오이디푸스

테베스 쪽으로 향하던 어느 날 밤, 큰 나무 밑에서 자던 오이디푸스는 숲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깬다. 달빛에 소리 나는 쪽을 쳐다봤더니 어떤 두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자신 쪽으로 숨을 죽이며 기어오고 있었다. 당시는 나그네를 습격하는 산적이 횡행하고 있었으므로 오이디푸스는 그들이 자신을 해치고 돈을 빼앗으려는 산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둠속에서 다가오는 그들 중 하나는 오이디푸스의 친부 라이오스였고 하나는 오이디푸스를 버렸던 라이오스의 충복이었다. 왜 일국의 왕인 라이오스는 한밤중 칼을 빼고 숲속을 기어가는가. 오이디푸스가 잠들어 있던 그 별관은 라이오스 왕이 옆 왕국과 전쟁을 벌였던 전쟁터의 변방이므로 라이오스는 적진을 염탐하기 위해 충복과 거기 나와 있었던 것이다. 라이오스는 오이디푸스를 발견하고 적진의 정찰병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달빛아래 라이오스와 오이디푸스는 서로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결투를 벌이게 되고 오이디푸

스는 라이오스를 살해한다. 아폴론의 첫 번째 신탁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산적 하나를 죽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라이오스의 충복은 라이오스의 최후를 목격하고 도망간다.

▲ 스팅크스의 수수께끼

오이디푸스는 짐을 꾸려 다시 길을 향하고 테베스 왕국에 도착한다. 그때 테베스의 백성들은 스팅크스에 의한 재앙을 당하고 있었다.

- 스팅크스에 관하여



스핑크스는 여인의 머리에 사자의 몸통, 날개를 달고 있었던 괴물이다. 스팅크스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수수께끼내기를 좋아했다는 것이다. 신화학자에 따라 스팅크스는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전래된 괴물이라고도 하고 그 반대의 견해도 있다.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스팅크스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스팅크스는 생긴 것이 동일하다.

스핑크스는 상대가 수수께끼를 못 풀면 죽여서 발밑에 쌓아놓는다. 이집트를 여행하면 피라미드 앞에 거대한 스팅크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집트 왕들이 피라미드를 세울 때 스팅크스를 같이 세워 이 피라미드 안에는 인간이 절대 풀지 못할 수수께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스팅크스의 비밀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현대 과학으로 어느 정도 풀어낸 것은 스팅크스의 어느 지점에 음식을 두면 절대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피라미드와 관련된 스팅크스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수수께끼의 내용이다.

- 스팅크스의 수수께끼

테베스의 어떤 주민도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있었다. 스팅크스는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에 사람을 물어 죽여 발밑에 쌓아뒀다. 자칫 잘못하면 왕국 전체가 스팅크스에 의해 멸망할 수 있는 위기다. 스팅크스의 문제는 '아침에는 다리가 네 개이고 오후에는 다리가 두개가 되었다가 저녁에는 다리가 세 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다. 정답은 사람이다. 아침, 오후, 저녁은 시간의 순서로 그렇게 해서 인생의 초기에는 태어나서 네발로 기어 다니다 성장해서 걸어 다니고 노년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테베스의 어떤 백성도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

▲ 테베스의 왕이 된 오이디푸스 - 신탁의 실현



오이디푸스가 스팅크스와 마주해 수수께끼의 해답을 맞힌다. 어떤 전승에서는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수수께끼를 풀자 스팅크스가 충격 받아 자살했다고 하고 다른 전승에서는 수수께끼를 풀어도 테베스의 재앙을 풀어주지 않자 오이디푸스가 결투를 벌여 스팅크스를 살해했다고 한다.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젊은 나그네에 의해 테베스의 운명이 구해지자 원로원에서는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한다. 오이디푸스가 무엇을 요구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전쟁터에서 전령이 왕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다.

오이디푸스의 소망은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평생 방황할 수는 없다. 또한 코린토스의 왕자였던 오이디푸스는 한 나라를 통치할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 오이디푸스는 미망인이 된 왕비와의 혼인을 요구했다. 테베스를 자신이 통치하겠다는 것이다.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에게는 오이디푸스 이후 후사가 없었다. 당연히 왕위는 오이디푸스의 것이다. 그렇게 오이디푸스는 어머니인 이오카스테와 혼인하고 테베스의 왕이 된다. 이렇게 아폴론의 두번째 신탁까지 이뤄진 것이다.

▲ 오이디푸스의 최후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어머니자 아내인 이오카스테 사이에서 네 명의 아이를 둔다. 그런데 노년에 라이오스의 총복에 의해 모든 것이 밝혀진다.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오이디푸스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오카스테는 자신의 침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다. 자신도 모르게 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충격에 휩싸인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 마저 죽자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단검을 빼어 자신의 두 눈을 실명케 한다. 그리고 더 이상 테베스의 주민으로부터 왕으로의 신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다시 테베스를 빠져나가 영원한 방랑의 길을 떠난다. 이것이 소포클레스가 전해주는 『오이디푸스 왕』의 내용이다.

▲ 비극이 공연되던 그리스의 원형극장



그리스의 극장 중 가장 유명한 에피다우로스 원형극장이다. 현재까지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다.

지중해 쪽으로 앞이 뚫려있어 원형극장의 음향적인 효과는 지중해 해풍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주인공들이 대사를 하는 무대 중앙의 대리석 판에 동전을 떨어뜨리면 그 소리가 맨 뒤의 관객에게 다 들릴 정도다. 지금도 『오이디푸스 왕』이 여기서 정기적으로 상연되고 있다.

▲ 그리스 비극작품의 특징

그리스 비극작품의 특징은 카타르시스를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 Aristotle. 『시학』

- ‘비극은 공포와 연민을 통해 이런 감정들의 카타르시스를 완수한다.

■ 비극은 타인의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편협한 이기심과 개별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신을 보편적인 주체성으로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비극 작품이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요소는 공포와 연민이다. 이것이 배설되는 과정까지가 비극이다. 희극에서는 공포와 연민을 느낄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높게 평가했다.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극이 희극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 비극의 목적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공포와 연민을 느껴야 한다. 비극작품의 주인공 중에 평범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비극작품의 주인공은 언제나 출신성분이나 지위가 고매한 자이다.(ex>오이디푸스 → 왕, 메데이아→왕비)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삶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을 동경하며 그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극작품에서는 그런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내가 저런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위치의 대상이 나보다 훨씬 가혹한 운명 앞에서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주는 것이다. 그 작품을 읽으면서 주인공에게 가해지는 공포, 연민은 나의 운명에 대해서 연민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래서 주인공에 대한 것이 아닌 실제로는 나에게 가해지던 공포와 연민을 배설하는 것이 비극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그리스 비극의 전통은 우리가 아는 중세시대의 작품을 거쳐 셰익스피어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참고